



나탈리 뒤버그의 작품이 전시된 트랜스포머.



PRADA 트랜스포머의 세 번째 프로젝트



제르마노
첼란트
프라다재단
아트 디렉터.

Third Wave

경희궁 안에 자리 잡은 요상한 건축물 '프라다 트랜스포머'가 스커트 전시회와 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러낸 뒤, 이번에는 현대미술의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스웨덴 출신의 영 아티스트 나탈리 뒤버그의 개인전이 열리는 것. 제53회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나탈리 뒤버그는 밀라노의 프라다재단과 (2008) 빈의 쿤스트할레 빈(2007) 등에서 열린 개인전과 모마에서의 단체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차세대 아티스트. 이번 전시를 통해 대형 설치작품들과 스톱모션 기법을 이용한 단편 애니메이션 등 그로테스크하고도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오픈링 파티가 열렸던 8월 14일 밤에는 작가 강형구와 배병우, 제르마노 첼란트 프라다재단 아트 디렉터를 비롯해 100여 명의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 특별한 전시를 축하했다. editor 오유리



작가 강형구.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 부부.

와인 메이커스 자선 디너

Warm Donation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이 본인 소유의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와인 디너를 열었다. 버진 고다(Virgin Gorda) 섬의 네일 베이 리조트(Nail Bay Resort) 대표 아짓 매튜 조지가 발족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와인 메이커스 디너'는 적십자와 섬 학교를 돕기 위한 자선 행사의 일환이다. 4일 동안 30~40분 거리의 섬 4 곳을 옮겨 다니며 세계 각국의 셰프 7명이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와인 메이커가 이에 어울리는 와인을 매칭해주는 이 특별한 경험에는 세계 각국의 프레스 및 저명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만 달러의 자선기금이 모금되었고, 12월에 있을 또 한 번의 행사에선 한식도 선보일 예정이다. **PH** editor 부

계영 photographer Peter Wesley



총 4개 섬에서 열린 자선 파티.

오는 12월 행사에서 한국 음식을 선보일 요리 연구가 정태경(맨 오른쪽) 씨.

